

01/23
2022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ΙΧΘΥΣ(익투스)

"Ιησοῦς Χριστός, Θεοῦ Υἱός, Σωτήρ"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베드로

[마 16:13-19]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부 중보기도 : 행정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마리아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막 1:17]

1.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거룩한 주일,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롭고 성령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공허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연약한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혼 속에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3. 주일예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충만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4.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올 한해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의 표어처럼 각자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5. 예배에 참석하신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2022 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6. **새해 모든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엎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 부: 권상욱목사, 2 & 3 부: 김대규목사)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 22:3]

-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 기름부으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 찬양할 때, 모든 묶임과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참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김병진목사, 최성민목사, 송종호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전형국장로, 고석묵장로, 홍호철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1. 한기홍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 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은혜 받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 기름부으신 말씀의 권세가 영적으로 곤고한 자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궁핍한 이들이 부요의 복을 받게 하시며 심령이 상한 이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3.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심령성전이 수축되고 재건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통해 꿈을 꾸고 이루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4.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사랑과 헌신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5. 담임 목사님에게 천상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팬데믹 시대를 적절히 대응하며 깨어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고 제사장적 중보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6.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고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7.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부흥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2022년도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주옵시고 영적인 대 추수가 은혜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 열방을 깨우게 하옵소서. 아멘!

B.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며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행할 때 교회의 반석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 베드로처럼 변화되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찌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 [대상16:29]

- 1) 만물의 주인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 2)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4)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거룩함(레11:45)과 존귀함(잠 22:1)과 정직함(잠12:22)이 생활화 되게 하옵소서.**
2.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큐티, 말씀통독,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 변화받아,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영혼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4. 2022년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2. 청소년들을 각종 유혹과 중독에서 건져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자녀들이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속에 파워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4. 공교육을 성경적 기초 위에 다시 세워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5. Jesus' Light 성도들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6.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를 위한 기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 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2)

1.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 낙담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옵소서.
3. 예배를 통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4. 가족들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5.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모든 교인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미 감염되신 성도님들은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명을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특별히, 건강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 2) 어려운 시기지만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3)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 주옵시고, 모든 출입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 2) 현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 3) 미개척, 미전도 무슬림 지역과 공산권에서 목숨을 걸고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조 선교사님(중국)

1. 유스 D 스쿨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시기를.
2. 영어현지어 D 훈련의 온오프 모임을 지켜 주시기를.
3. 안전과 1-2 월 한국행 귀국길을 순탄케 하시기를.

송두선 선교사님(멕시코)

1. 멕시코 시티 전도집회 (1 월 29 일) 폴루까 지역 전도 집회를 통해 주님이 예비 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올수 있도록. 2. 모든 팀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 전할수 있도록. 3. 사탄의 공격, 방해로 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4. 성령충만과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 할수 있도록.

최 선교사님(터키)

서울은혜교회와 터키인 제자 양육, 평강교회 청년들 사역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는
믿음 때문에 핍박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 김배울 선교사님/ 김돈수 선교사님: 코로나 감염
- 서금순 선교사님(러시아)- 건강회복을 위해
- 강지애 선교사님(아르헨티나)-유방암 치료를 위해
- 이지향 선교사님(I 국)- 척추협착증, 발 족저근막염
- 박성직 선교사님(C 국) -심혈관 건강을 위해
- 김봉년 선교사님(첼라빈스크)- 암이 치유되도록
- 양창모 선교사님(터키)- 파킨슨병
- 이해영 선교사님(터키)- 유방암 말기, 치유를 위해
- 김지경 선교사님(사할린)- 면역력 치유와 회복
- 최정진 선교사님(알타이)- 다리 관절 건강
- 김명자 선교사님(스웨덴)- 췌장암 항암치료
- 김영순 선교사님(케냐)- 류마티스 증상
- 김송호 목사님: 자가 호흡이 가능하도록
- 최정미 선교사님(남아공)-심장과 치아 문제

(고) 이예신 선교사님은 지난 15 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2022 년 새해,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 [행 13:22]
2. 주여,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성령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한 부흥의 새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3. 금년에 있을 낙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1973 년에 6 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한 Roe v. Wade 판결이 무효화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계속 창궐하는 팬데믹을 통해서 미국과 세계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힘있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에 부흥의 새바람이 불게하옵소서.
5. 금년 11 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한국의 3 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이 선출 되게 하옵소서.

2022
HAPPY NEW YEAR

신년축복성회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일시: 2022.2.10(목)~13(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강사: 장순직 목사(원주드림교회 담임)

교회 사역

성도 양육과정 개강(2/2)
공동의회 및 부서장 모임 (2/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새해를 맞이해서 주일마다 교회 표어대로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시고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꿈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울에게는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결국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며 이루어주신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꿈도 하나님의 꿈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예배와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예배 드리면서 수시로 만나는 전도의 기회를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목사 드림



몸 된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없는 우주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임을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 12:31, 14:30, 16:11)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약 4:7)" "근신하라. 깨어라(벧전 5:8)"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1)"등등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2)"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혀 영적 전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매일매일 교회의 예배와 가정교회, 선교 등 제반문제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정장을 하고 자신 만만하게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만 보고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언제나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예배준비 및 인도, 행정조치, 심방, 손님접대, 원고 쓰기 등 하루가 36 시간이 되어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게다가 만성피로감으로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해야 할 일들은 더욱더 쌓여 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기 개성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며, 이해관계가 다른 성도님들을 목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를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계속 힘든 일, 어려운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의 마음도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눌린 것처럼,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하여 최종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사탄, 마귀는 목사들을 공격하기를 꾀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1분간만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방패가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의 화전을 소멸시켜 주게 됩니다. 몸 된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